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3 No.2 Serial No.134 2015.4. 71~88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5.33.2.71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Typology of Weekend Time Use and Time Use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Men with a Preschool Child in Korea

김 소 영(Soyoung Kim)*, 진 미 정(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how married working men with a child younger than six years old spent their weekend time either alone or with their wives on housework, family care, and leisure activities, and to find out whether different types of time use brought about different levels of satisfaction to their use of time on weekends. Factors associated with each type were also explored. We analyzed 857 weekend time diaries of married men with a preschooler and men who worked more than 40 hours a week. This data came from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weekend time distribution to those three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types, namely, 'nonparticipation', 'personal leisure centered', 'couple leisure centered', and 'family centered'. Time use satisfaction for 'couple leisure centered' and 'family centered' types which involved wife and chil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two types. Age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were associated with the personal leisure and couple leisure centered types, while work related factors such as work hours, regular day off, employment status, and occupation functioned as determinants of the nonparticipation typ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weekend time spent together with family could be the source of satisfaction, but almost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deprived of their weekend family time due to work schedules on weekends. This study supports the need for organizational and policy efforts to ensure non-working weekends for fathers and husbands.

▲주제어(Key words) :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남성(employed men with preschooler), 주말시간사용(weekend time use),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typology of weekend time use), 시간사용만족도(time use satisfaction)

Ⅰ. 서 론

유자녀 기혼 취업 남성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시간, 부부 공유시간, 그리고 가족여가시간이 주중에 비해 주말에 증가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는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주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 Ahn, K. Lee, & S. Lee, 2013; M. Bittman, 2005; I. Glorieux, J. Minnen, & T. P. Van Tienoven, 2011; J. L. Hook &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So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10-7738-9479, E-mail: syoungkim@snu.ac.kr

C. M. Wolfe, 2012; O. Kim et al., 2012; K. Lee, H. Lee, O. Kim, Y. Lee, H. Cho, S. Lee, J. Kim, & Y. Han, 2012; W. J. Yeung, J. F. Sandberg, P. E. Davis-Kean, & S. L. Hofferth, 2001; J. Zuzanek & B. J. Smale, 1999). 일을 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주말은 자녀의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배우자와도 더 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아버지역할(new fatherhood)"을 실천할 기회가 된다(J. L. Hook & C. M. Wolfe, 2012; W. J. Yeung et al., 2001). 또한 자녀들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한 부모역할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K. J. Daly, 2001; S. Shaw, 2008), 주말은 아버지들이 자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J. L. Hook, 2012; D. J. Maume, 2011). 주말은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거나 외출을 하는 부부공유시간은 결혼생활의 질과 부부관계 강화에 중요하며, 결혼만족도의 예측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P. W. Kingston & S. L. Nock, 1987; K. Lee, O. Kim, & H. Koo, 1995; S. Shaw & D. Dawson, 2001; G. T. Smith, D. K. Snyder, T. J. Trull, & B. R. Monsma, 1988; L. Strazdins, M. Clements, R. J. Korda, D. H. Broom, & R. M. D'Sauza, 2006). 남편들은 평일에는 직장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취미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주말에나 찾을 수 있는 현실에서, 남편이 주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인과 함께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는 결혼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말에 부부가 함께 또는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특정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주말이 가져다주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같이 할 다른 사람들과 일정을 조율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하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인도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며, 친척이나 친구와의 교제 또한 시간이 일치할 때에만 가능한데, 주말은 이러한 일정 조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시간인 것이다(M. Bittman, 2005; V. R. Wight, S. B. Raley, & S. M. Bianchi, 2008).

주말은 일하는 남성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산책, 등산, 또는 운동을 하거나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여가와 오락시간이 되기도 하며, 부족한 잠을 보충하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M. Bittman, 2005; J. Zuzanek & B. J. Smale, 1999). 특히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하는 여가시간은 휴식과 재충전에 중요하며, 사회적 관계 강화에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Y. Iwasaki & B. J. Smale, 1998; S. Shaw & D. Dawson, 2001; L. Strazdins et al., 2006). 남성들의 일과 가족시간에 관심을 가져 온 서구 학자들은 주말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표준화된 근무시간을 벗어나 일을 할 경우 이는 건강이나 삶의 질(well-being), 직업만족도, 일-가족 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M. Tausig & R. Fenwick, 2001; A. Wirtz, F. Nachreiner, & K. Rolfes, 2011). 특히 남성의 생활에서 지나친 노동시간으로 인한 불균형과 아버지 역할의 소외라는 문제로 부각된 남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말 시간사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H. Song et al., 2010).

이처럼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취업 남성들의 가족시간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말시간을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남성들의 여가, 자녀 돌봄, 가사노동 등 다양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나, 그에 비하면 한국 남성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기로 유명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Yonhap News, 25 August 2014),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은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평일보다는 주 5일 근무제 등의 시행으로 이전보다는 비교적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주말시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J. Lee & Y. Lee, 2002).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이 시간을 어떤 활동에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일상은 달라지고 이러한 일상이 모여 개인의 삶의 방식을 이루게 된다. 한 활동영역에 사용한 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활동영역에서의 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간사용의 특성상 시간배분의 유형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한국 성인 남녀의 생활시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S. Cha, 2008; J. Han & Y. Lee, 2005; O. Kim, 2012; O. Kim et al., 2012). 취업 남성의 생활시간 배분유형을 살펴 본 연구들은 남성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유급노동 시간이 시간사용 유형의 축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평일의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구분한 유형 중에서는 유급노동 중심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면, 유급노동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주말에는 남성들도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급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은 계약에 의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는 주말시간을 가사노동, 자녀돌봄, 여가의 세 활동영역 가운데 어디에 더 많이 사용하는

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애과정 및 발달적 관점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여 돌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M. Bittman & J. Wajcman, 2004; I. Glorieux et al., 2011; D. Hallberg & A. Klevmarken, 2003; M. Kalmijn & W. Bernasco, 2001; Y. Han & S Yoon, 2008; K. Lee et al., 2012; S. Lee & H. Lee, 2011; S. Pacholok & A. H. Gauthier, 2004; L. C. Sayer, S. M. Bianchi, & J. P. Robinson, 2004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말에 홀로 또는 부인과 함께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말 시간사용을 유형화하여, 생계부양자로서가 아닌 아버지, 남편, 개인으로서 남성의 삶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된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함께 한 사람' 자료는 활동별로 혼자, 배우자, 미취학 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 기타로 활동을 같이 한 사람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활동별로 여러 범주의 사람들과의 공유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복수의 응답도 가능하게 하여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가 함께 한 시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에 동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한 사람을 범주별로 분석할 경우에는 공유시간이 과대추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 가족 공유시간의 과대추정을 최소화하고자 주말에 홀로 또는 부인과 함께 가정관리, 가족 보살핌,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분석하였다. 혼자서 한 활동시간을 살펴보는 이유 또한 원자료의 특성 때문인데, '함께 한 사람'에 대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주행동 자체를 누구와 함께 하였는지에 해당함'으로 정의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그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함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집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보기의 경우, 부인은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다면 이 행위는 '혼자서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로 일지에 기록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만을 분석한다면 이와 같이 '혼자'서 한 여러 가사노동과 돌봄 시간이 누락되어 남편의 가정관리 또는 가족 보살핌 영역의 시간이 과소추정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주말 시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시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보내는 여가시간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혼자'한 활동시간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각 활동별로 배분되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계량적 연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하루의 시간구조가 개인의 일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시간사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 또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시간부족감, 업무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는 피로도, 그리고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시간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자료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계량적 성격을 갖는 시간사용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별로 시간사용만족도를 비교하여, 이들이 누구와 어떤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이 어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직업 특성 가운데 각 유형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남성이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가운데 특정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말에 남성이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분석한 활동 중심의 시간사용 연구를 확대하여 누구와 함께 그 활동을 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시간의 질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성들이 시간사용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는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활용하게 된다면, 남성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말 시간사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은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연구문제 2>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3>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에 따라 시간사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직업 특성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자녀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시간

자녀가 있는 남성들의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주말에 남성들이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 시간(S. Ahn et al., 2013), 부인과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 시간(Y. Han & S. Yoon, 2009; K. Lee et al., 2012; S. Lee & H. Lee, 2011),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여가시간(Y. Lee et al., 2012)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D. J. Maume(2011)는 1977년과 1997년 사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일을 하는 날에 비해 일을 하지 않는 날에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증가량이 3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주말에 남성에게서 참여적인 성격의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W. J. Yeung et al.(2001)은 주말에 “새로운 아버지” 역할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J. L. Hook and C. M. Wolfe(2012)는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4개국 아버지들이 주말에 홀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공통되게 늘어난다는 것은 주말이 새로운 아버지 역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V. Gillies, 2009),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양질의 시간은 애정, 친밀감, 감독, 강한 유대를 형성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에서(L. Craig, 2006) 주말은 이러한 부성문화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하게 연구되어 온 영역은 남편으로서 부인과 함께 보내는 부부공유시간이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져 왔으며, 부부간의 상호작용이나 여가공유는 결혼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결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M. S. Hill, 1988; P. W. Kingston & S. L. Nock, 1987; K. Lee et al., 1995; C. Reissman, A. Aron, & M. R. Bergen, 1993; G. T. Smith et al., 1988; L. Strazdins et al., 2006). 주말은 남편들이 부인과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하고(K. Lee et al., 2011), 함께 외출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K. Lee et al., 1995; Y. Lee et al., 2012; M. Voorpostel, T. Lippe, & J. Gershuny, 2010).

아버지나 남편으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남성 개인에게 주말은 휴식과 재충전,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이 되며 시민참여활동과 사교 및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M. Bittman, 2005; J. Zuzanek & B. J. Smale, 1999).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일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되면, 이는 남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 직업만족도, 일-가족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건강도 나빠진다는 연구결과(H. Presser, 2000; L. Strazdins et al., 2006; M. Tausig & R. Fenwick, 2001; A. Wirtz et al., 2011)는 주말이 일을 하는 남성 개인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말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일하는 남성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 남성들이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의 응집성을 높이고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며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과도한 일 중심 생활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H. Song et al., 2010; H. Song, 2012), 주말 시간사용은 남성 근로자들의 일-가족 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시간사용만족도

그동안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한국 성인남녀의 생활시간을 유형화한 연구는 있었으나(S. Cha, 2008; J. Han & Y. Lee, 2005; O. Kim, 2012; O. Kim et al., 2012), 활동별 시간을 중심으로 생활시간 유형화를 시도하거나, 공유시간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유활동시간과 더불어 혼자서 활동한 시간까지도 유형화의 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유형화 연구가 간과하거나 포착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보여주고자 하였다.

S. Cha(2008)는 35-59세 사이의 유배우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급노동, 가족관련활동, 여가활동 시간을 축으로 생활시간을 유형화한 결과, 일여가형(38%), 일중심형(37%), 여가중심형(22%), 가족중심형(3%)의 순으로 조사대상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가족중심형은 가사노동과 돌봄 행위를 포함한 가족관련활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특성이 있다. O. Kim et al.(2012)은 20-59세 기혼자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가족식사시간, 가족

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여, 남성은 비공유형(47%), 전반적공유형(28%), 여가우위형(16%), 가사노동우위형(8%)의 순서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O. Kim(2012)은 20-59세 기혼자의 일요일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여가시간을 공유하는 대상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취약형(34%), 개인중심형(29%), 가족중심형(24%), 타인중심형(13%)의 순서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 연구 모두 유형화를 위해 기준으로 사용한 시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중심이 되는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분포가 가장 많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O. Kim(2012)과 O.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일요일의 시간일지를 사용하였고 유형화의 기준으로 유급노동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유형'과 '취약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의 유형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두 유형 모두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통해 일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미취학 자녀는 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시키고, 부부공유시간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는 반면 가족공유시간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K. Eun, 2009; L. Glorieux et al., 2011; D. Hallberg & A. Klevmarken, 2003; K. Lee et al., 2012; S. Lee & H. Lee, 2011; D. J. Maume, 2011)의 결과들은 S. Cha(2008)과 O.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일요일에는 가사노동우위형에 속하는 비율이 39%로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의 6%보다 6배 이상 많은 분포를 보였고(O. Kim, 2012),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S. Cha, 2008).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가사노동이나 돌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배분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간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 Cha, 2010; M. J. Mattingly & L. C. Sayer, 2006).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직장과 가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며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남성의 경우,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면 임금노동시간만이 시간압박인식과 유의미하게 정적 관련이 있다는 S. Cha(2010)의 연구는, 남성들의 시간부족 인식이 직업역할에서 비롯된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M. J. Mattingly & L. C. Sayer, 2006; K. M. Nomaguchi, M. A. Milkie, & S. M. Bianchi, 2005), 이는 일중심형이나 취약형의 경우 시간부족감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S. Cha, 2008; O. Kim, 2012). M. J. Mattingly and L. C. Sayer(2006)의 시간부족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과는 달리 남성에게는 결혼지위나 자녀유무, 가사노동시간량은 바쁘다는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들은 주로 일을 할 때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가사노동을 할 때에는 시간압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역할에서는 자신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반면, 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에서는 주된 책임이 부인에게 있고 자신은 조력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이 직업역할이 아닌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정서를 탐색하기에는 시간압박감보다는 시간사용만족도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들은 아버지로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싶어 하며,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자녀와 함께 가족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느끼는 불만에 대해 보고하고 있고(K. J. Daly, 2001; M. A. Milkie, M. J. Mattingly, K. M. Nomaguchi, S. M. Bianchi, & J. P. Robinson, 2004), 남편으로서 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M. S. Hill, 1988; P. W. Kingston & S. L. Nock, 1987; K. Lee et al., 1995; C. Reissman et al., 1993; G. T. Smith et al., 1988; L. Strazdins et al., 2006)을 통해, 남성들이 누구와 함께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여가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사용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주말 시간사용 관련 요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남성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또는 개인소득, 맞벌이 여부, 직종,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B. Monna & A. H. Gauthier, 2008). 연령은 결혼지속기간이나 자녀의 연령, 즉 가족생활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말 시간사용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L. C. Sayer et al.(2004a)은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직업 경력이 길어짐에 따라 직장에서의 시간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자녀와의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고, P. W. Kingston and S. L. Nock(1987)은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남성의 연령이 가사노동시간과는 부적으로, 여가시간과는 정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K. Lee et al., 2011; S. Lee & H. Lee, 2011).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만으로 분석대상을 제한

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로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연령분포 또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직업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고(S. Chalasani, 2007; J. Guryan, E. Hurst, & M. S. Kearney, 2008; L. C. Sayer et al., 2004a; L. C. Sayer, A. H. Gauthier, & F. F. Furstenburg, 2004b; W. J. Yeung et al., 2001),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길어진다고 하였다(S. Coltrane, 2000; S. Lee & H. Lee, 2011). 교육을 잘 받은 남성들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발달에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참여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고자 하며, 양성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교육수준과 가사노동 또는 자녀돌봄의 정적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E. C. Cooksey & M. M. Fondell, 1996; L. C. Sayer et al., 2004b). S. Lee and H. Lee(2011)는 남성의 교육수준이 주말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교육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 보다는 가정이나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소득이 남성의 자녀돌봄 또는 가사노동 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은 남성의 소득은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 시간과는 무관하며(D. J. Maume, 2011), 수입이 증가할수록 주중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지만, 주말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W. J. Yeung et al., 2001).

국내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족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Y. Han & S. Yoon, 2009; S. Heo, 2008; S. Lee & H. Lee, 2011). 자녀돌봄 시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의 노동시간이 남편의 자녀돌봄 시간에는 영향이 없거나(D. Hallberg & A. Klevmarken, 2003; W. J. Yeung et al., 2001), 아버지가 평일에 홀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증가하나 주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J. L. Hook & C. M. Wolfe, 2012), 그리고 어머니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결과(S. Hofferth, 2003)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가사노동에서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K. Eun, 2010; S. Heo, 2008). P. W. Kingston and S. L. Nock(1987)와 I. Glorieux et al.(2011)은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이 홀벌이 부부보다 적다고 하였다.

남성이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 또는 양성평등 의식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S. Coltrane, 2000; S. Heo, 2008; S. Hofferth, 2003). 그러나 부부공유시간에 있어서 L. K. White(1983)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부에게 공유활동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남편은 부인 없이 남성 활동에, 부인은 남편 없이 여성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M. Kalmijn and W. Bernasco(2001)의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오히려 남편과 덜 분리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직업 특성 중에서는 노동시간, 직종, 직장에서의 지위 등이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남성들이 주말에 직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사용을 분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휴일이 보장된 남성들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업 특성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자녀돌봄, 가사노동, 여가활동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S. Heo, 2008; J. L. Hook, 2012; D. J. Maume, 2011; M. A. Milkie et al., 2004; W. J. Yeung et al., 2001). 특히 남성의 주말시간을 따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자녀와의 시간, 여가시간 사이에 서로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S. Ahn et al., 2012; Y. Han & S. Yoon, 2009). L. Craig and J. E. Brown(2014)은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일 때 주말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중에 다 하지 못한 일이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말근무는 장시간 노동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S. Cha(2008)는 직종이나 지위가 중년 기혼남녀의 생활시간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Y. Han and S. Yoon(2009)은 남성의 직종에 따라 주말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별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K. Gerson(1993)이 화이트칼라 사무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참여율이 가장 높은 반면, 블루칼라 노동직, 중간 관리직,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의 자녀돌봄 참여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K. Gerson, 1993, as cited in B. Monna & A. H. Gauthier, 2008). D. J. Maume(2011)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서비스・영업・생산노동자와 전문관리직, 그리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J. L. Hook(2012)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영국 남성들이 비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유의미하게 더 길지만, 가족시간이나 부부공유시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성이 가사노동, 자녀돌봄,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다양한 개인 및 직업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각 요인들의 영향 또한 그 방향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더욱이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을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 Ahn et al., 2013; Y. Han & S. Yoon, 2009; K. Lee et al., 2011; S. Lee & H. Lee, 2011; Y. Lee et al., 2012; D. J. Maume, 2011; W. J. Yeung et al., 2001).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제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운데 '함께 한 사람'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 가운데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일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2009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가구의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시간일지를 통해 한 사람당 이틀씩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10분 간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에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을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 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 ⑤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복수의 응답도 가능하게 하여 배우자와 미취학자녀가 함께 한 시간에 대해서는 ② 배우자와 ③ 미취학 자녀에 동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함께 한 사람'에 대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주행동 자체를 누구와 함께하였는지에 해당함'으로 정의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그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함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자녀 취업 남성의 주말시간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① 혼자 그리고 ② 배우자와 함께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업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취업 남성으로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남성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 특성 가운데 노동시간의 다양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2일씩 시간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금-토' 집단, '토-일' 집단, '일-월' 집단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일지를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운데 하루의 시간일지만 사용된 조사대상자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의 시간일지가 모두 사용된 조사대상자들을 비교한 t-test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나 직업 특성, 시간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중복된 조사대상자들을 각각 한 개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t-test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의 주말 시간일지 857부(토요일 455부, 일요일 402부)이며, 이 가운데 114부는 미취학 자녀와 위로 10-17세 사이의 자녀를 같이 두고 있는 남성의 주말 시간일지이다.

2. 변수정의 및 측정도구 구성

1) 유형화를 위한 영역별 시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이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형화하기 위해 혼자서 한 가정관리 활동 시간, 혼자서 한 가족 보살피기 활동 시간, 혼자서 한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부인과 함께 한 가정관리 활동 시간, 부인과 함께 한 가족 보살피기 활동 시간, 부인과 함께 한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의 6개 영역을 사용하였다. 하루 동안 각 활동 영역에 속하는 행위에 사용된 전체 평균시간을 합산하여 영역별 시간을 측정하였다. 가정관리 영역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이 포함되고, 가족보살피기 영역에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행위가 포함되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는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행동이 포함되었다.

2) 개인 및 직업 특성과 시간사용만족도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연령, 교육수준, 개인 월평균 소득, 맞벌이 여부,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같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고, 주당 유급노동시간, 정기적으로 쉬는 날, 직장에서의 지위, 직종을 직업 특성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 중 연령과 성역할 태도는 연속변수로, 나머지 변수는

명목변수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고졸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개인 월평균 소득(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맞벌이 여부(맞벌이, 홑벌이), 주당 유급노동시간(40-49시간, 50시간 이상)은 이분변수화하였고,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이틀, 토요일 격주, 2주에 하루, 수시로, 기타'로, 직장지위는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로, 직업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기능·단순노무직'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점수범위: 1-4점). 시간사용만족도 역시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된 "시간일지를 작성한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점("매우 만족한다")부터 5점("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까지 응답한 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사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에는 STATA 12.0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별 개인시간과 부부공유시간량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고, 각 영역의 세부행위별로 전체평균시간과 더불어 참여자 비율과 참여자 평균시간을 평균과 백분율로 산출하여 이들의 주말 시간사용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로 시간사용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주말시간 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직업 특성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개인 및 직업 특성은 <Table 1>에 정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Personal and work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857)

Variables		Frequency (%) / Mean (SD)
Age in Group	20s	86(10.0)
	30s	601(70.1)
	40s	159(18.6)
	50s	11(1.3)
Age in Years		35.9(4.9)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 below	307(36.0)
	College degree & above	550(64.0)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point range: 1~4)		2.58(.66)
Monthly Wage	Less than 2.5 million won	474(55.3)
	Over 2.5 million won	383(44.7)
Wife Employment	Employed	312(36.0)
	Not employed	545(64.0)
Hours of Work	40-49 hours	357(42.0)
	50 hours or more	500(58.0)
Regular Day Off	Once a week	252(29.4)
	Saturdays biweekly	90(10.5)
	Twice a week	309(36)
	Once every two weeks	38(4.4)
	Irregularly	105(12.3)
	Others (e.g. alternate day)	63(7.4)
Employment Status	Employee	658(76.8)
	Employer	71(8.3)
	Self-employed	128(14.9)
Occupation	Professional / Managers	214(25.0)
	Clerical	177(20.7)
	Service / Sales	130(15.2)
	Agriculture / Manufacturing / Laborer	335(39.1)

Table 2. Average time (in minutes) spent alone or with wife on different activities on weekends

	Housework	Family Care	Leisure	Sum
Alone	21.4	49.9	142	213.3
With wife	19.6	13.1	78.5	111.2
Sum	41.0	63.0	220.5	
t-test	1.0	15.7***	12.6***	

***$p < .001$

Table 3. Average time (in minutes),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time (in minutes) in housework, family care, and leisure alone or with wife on weekends

		Alone			With wife		
		Average time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time	Average time	Participation rate	Participation time
House -work	Food preparation & clean	5.3	22.8	22.2	2.4	9.2	25.8
	Laundry & clothes care	1.5	6.4	22.4	0.1	0.6	17.5
	Cleaning	7.6	31.1	24.0	4.0	12.7	31.6
	House maintenance	4.5	15.8	28.3	0.5	1.6	28.6
	Shopping	2.0	6.8	29.2	12.5	22.2	56.8
	Home management	0.2	1.1	20.7	0.1	0.2	50
Family Care	Care of preschooler	45.7	94.9	47.6	11.6	26.7	41.6
	Care of 10-17 years old child	2.4	6.4	40.1	0.4	1.3	30
	Care of spouse	0.5	2.3	21	0.1	0.2	30
	Care of (grand)parents	1.2	1.8	67.5	0.9	1.3	69
	Care of other family members	0.0	0.1	10	0.2	0.4	50
Leisure	Socializing	1.1	4.9	22.6	16.7	41.8	39.7
	Study	5.6	3.2	172	–	–	–
	Mass media	88.7	115	80.2	44.5	53.9	82.8
	Religious activities	0.9	1.6	52.7	4.5	4.4	102
	Entertainment & culture	0.1	0.1	120	2.4	2.8	86.7
	Sport & outdoor activities	10.1	16.2	62.8	7.5	11.7	64.2
	Hobbies & free time	35.1	74.8	46.2	1.7	2.8	62.1
	Leisure-related shopping	0.8	2.2	36.3	0.8	2.2	35.8
	Other recreation & leisure	0.4	2.2	19.5	0.3	1.5	16.9

Note: Among the 857 respondents with preschoolers, 114 men had both preschoolers and child aged 10-17 years old, which is why the table contains values for the 'care of 10-17 years old child' category.

리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의 70%가 30대에 분포하고 평균연령은 35.9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가 64%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개인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 미만이 55%로 약간 더 많았다. 미취학 자녀가 있기 때문인지 맞벌이인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점수는 2.58점으로 중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직업 특성을 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가 반을 넘었고, 임금근로자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직종별로는 농림·기능·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9%로 가장 높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그 뒤를 따랐다.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일주일에 이틀인 경우가 36%이고, 29%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응답하여 65%가 토요일과 일요일 가운데 최소한 하루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2주에 하루 또는 토요일에 격주로 쉬는 등 주말에 거의 쉬지 못하거나, 쉬는 날이 불규칙하거나 격일근무 등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 주말 시간사용 경향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남성이 주말에 혼자 보내는 시간과 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213분을 혼자서, 111분을 부인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시간이 부부공유시간보다 2배 정도 긴 경향을 보였다.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별로 분석한 개인시간과 부부공유시간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가정관리 영역에서는 혼자서 한 시간이나 부부가 함께 한 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가족 보살피기 시간에서는 남성 혼자서 한 시간이 부부가 함께 한 시간보다 3배 이상 길었고($t = 15.7$, $p < .001$), 교제 및 여가시간

에서도 혼자서 보낸 시간이 2배 정도 길었다(t = 12.6, p< .001). 가정관리 또는 가족 보살피기 활동에 비해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훨씬 길고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에서, 취업남성들의 주말시간은 혼자만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행위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의 세부행위별 전체평균시간, 참여율, 참여자 평균시간을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31%가 혼자서 주말에 청소와 정리를 하였고, 23%가 음식 준비 및 정리를 한다고 하여, 주말 남성들이 주로 하는 가사노동은 청소와 식사준비와 설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가정관리 행위 중에서는 물품구입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 보살피기 영역은 미취학 자녀, 초중고생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그 외 가족 등 다양한 대상을 보살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남성이 혼자서든 부인과 함께든지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에 사용한 평균시간과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들이 주말에 주로 하는 가족 보살피기 활동은 자녀 돌보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가 함께 자녀를 보살피는 11.6분보다 훨씬 많은 45.7분을 남성이 홀로 자녀 돌봄에 사용하고, 참여율 또한 95%에 이른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는 이질적인 성격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주말에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혼자 또는 부인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TV시청과 같은 미디어 이용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4명 가운데 3명이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교제활동, 종교활동, 관람이나 문화행사 참석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그 외 스포츠나 레저, 취미활동에서는 혼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3.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홀로 가정관리, 홀로 가족 보살피기, 홀로 교제 및 여가활동, 부부공유 가정관리, 부부공유 가족 보살피기, 부부공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여섯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주말 시간배분 형태에 따라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유형을 4개로 선정하였을 때 각 집단별로 조사대상자가 10% 이상 분포하였고, 홀로 또는 부부공유 시간량에서도 활동별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첫 번째 주말 시간사용 유형은 여섯 개 차원에서 사용한 시간이 모두 집단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전반적 비참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두 번째 유형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홀로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이 집단 평균에 비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므로 '개인여가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홀로 하는 활동 시간은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부인과 함께 하는 가정관리 활동과 여가활동 시간이 집단 평균에 비해 길었다. 특히 부인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은 집단 평균보다 3배 정도 길었기 때문에 이 유형은 '부부여가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홀로 또는 부인과 함께 하는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활동 시간이 집단 평균보다 길었기 때문에 '가족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주말 시간사용 유형에 따라 시간사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able 4. Typology of weekend time use (unit: mean time)

	N (%)	Housework alone	Family care alone	Leisure alone	Housework with wife	Family care with wife	Leisure with wife
Total	857(100)	21.4	49.9	142.9	19.6	13.1	78.5
Nonparticipation	395(46.1)	12.1^{a}	22.4^{a}	70.6^{a}	10.3^{a}	9.6^{a}	37.6^{a}
Personal leisure centered	212(24.7)	24.6^{b}	48.2^{b}	309.7^{b}	19.8^{b}	8.1^{a}	57.9^{b}
Couple leisure centered	151(17.6)	20.5^{ab}	48.6^{b}	113.2^{c}	34.8^{c}	13.6^{a}	217.2^{c}
Family centered	99(11.6)	53.1^{c}	166.1^{c}	119.9^{c}	33.4^{c}	37.1^{b}	73.9^{b}
F value		31.0***	247.2***	516.5***	23.3***	21.6***	414.5***

$^{***}p$ < .001

Note: Superscripts (a, b, ab, c) indicate that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post-hoc Scheffé contrast.

Table 5. Time use satisfaction by weekend time use types

Nonparticipation	Personal leisure centered	Couple leisure centered	Family centered	F value	Scheffé
3.08	3.04	3.26	3.32	4.78***	a a b b

$^{***}p$ < .001

일원분산분석(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부부여가중심형과 가족중심형에 속하는 남성들의 시간사용만족도가 전반적 비참여형과 개인여가중심형에 속하는 남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 4.78, p< .001).

4. 주말 시간사용 유형 관련 요인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직업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형별로 짝을 지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남성의 경우 개인특성 가운데 연령은 개인여가중심형을,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부부여가중심형을 구분해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유형보다도 개인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개인여가중심형 대 부부여가중심형 O.R. = 1.06, p< .05, 가족중심형 대 개인여가중심형 O.R. = .94, p < .05, 전반적 비참여형 대 개인여가중심형 O.R. = .94, p< .01),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강할수록 개인여가중심형이나 전반적 비참여형보다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개인여가중심형 대 부부여가중심형 O.R. = .67, p< .05, 전반적 비참여형 대 부부여가중심형 O.R. = .66, p< .05).

직업 관련 특성은 주로 전반적 비참여형과 다른 유형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 이상일 때, 부부여가중심형(O.R. = 1.57, p< .05)이나 개인여가중심형(O.R. = 1.85, p< .01)에 비해 전반적 비참여형에 더 많이 속하였으며,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이틀보다 적을 때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해진 요일 없이 수시로 쉬거나 격일근무와 같이 기타 항목에 응답한 경우, 일하지 않는 날이 더 많더라도 쉬는 요일이 불규칙하고 주말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종 중에서는 사무직에 비해 농림・기능・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른 유형보다도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하였다(전반적 비참여형 대 부부여가중심형 O.R. = 2.69, p< .001, 전반적 비참여형 대 개인여가중심형 O.R. = 2.05, p< .01, 가족중심형 대 전

Table 6. Factors associated with types of weekend time use

	Family vs. Couple leisure[1]	Personal leisure vs. Couple leisure[1]	Nonparticipation vs. Couple leisure[1]	Family vs. Personal leisure[1]	Nonparticipation vs. Personal leisure[1]	Family vs. Nonparticipation[1]
	O.R.(S.E)	O.R.(S.E)	O.R.(S.E)	O.R.(S.E)	O.R.(S.E)	O.R.(S.E)
Age	.99(.03)	1.06(.03)*	1.00(.02)	.94(.03)*	.94(.02)**	.99(.03)
College graduate & above	1.25(.43)	.83(.23)	.88(.22)	1.50(.49)	1.06(.23)	1.41(.43)
Traditional sex role attitude	.68(.15)	.67(.12)*	.66(.10)*	1.01(.20)	.98(.14)	1.03(.20)
Monthly wage[2]						
Over 2.5 million won	.87(.25)	.74(.18)	.81(.18)	1.16(.31)	1.09(.21)	1.07(.28)
Wife employed	1.38(.40)	1.44(.35)	1.30(.29)	.95(.25)	.90(.17)	1.06(.27)
Works over 50 hours[3]	1.07(.30)	.85(.20)	1.57(.35)*	1.26(.34)	1.85(.36)**	.68(.17)
Regular day off[4]						
Once a week	.48(.18)*	.98(.27)	1.75(.46)*	.49(.17)*	1.78(.43)*	.27(.09)***
Saturdays biweekly	.74(.32)	1.14(.41)	1.07(.38)	.65(.26)	.94(.29)	.69(.27)
Once every two weeks	.20(.22)	.48(.37)	2.45(1.27)	.41(.49)	5.08(3.28)*	.08(.09)*
Irregularly	.85(.51)	1.91(.88)	3.50(1.46)**	.44(.24)	1.83(.60)	.24(.12)**
Others(alternate day)	.35(.26)	1.25(.63)	2.24(.99)	.28(.20)	1.79(.69)	.16(.10)**
Employment Status[5]						
Employer	.35(.24)	.56(.24)	.89(.33)	.63(.43)	1.58(.56)	.40(.26)
Self-employed	.60(.28)	.36(.13)**	.60(.19)	1.69(.80)	1.67(.51)	1.01(.43)
Occupation[6]						
Professional/ Management	.70(.25)	1.01(.31)	1.48(.45)	.69(.24)	1.46(.41)	.47(.16)*
Service/Sales	1.05(.51)	1.32(.53)	2.00(.73)	.79(.36)	1.52(.51)	.52(.23)
Agriculture/Manufacturing /Laborer	1.02(.39)	1.31(.42)	2.69(.81)***	.78(.28)	2.05(.56)**	.38(.13)**

*p < .05, **p < .01, ***p < .001

Note: O.R. stands for odds ratio

[1]Reference group, [2]Reference group: less than 2.5 million won, [3]Reference group: 40-49 hours, [4]Reference group: twice a week, [5]Reference group: employed, [6]Reference group: clerical

반적 비참여형 O.R. = .38, p< .01). 노동시간이 길고 근무일이 많을수록, 그리고 농림・기능・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경우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 유형, 즉 개인여가중심형, 부부여가중심형, 가족중심형을 구분시켜주는 직업특성 변수는 휴일 빈도와 직장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경우 하루만 쉬는 남성들에 비해 부부여가중심형(O.R. = .48, p< .05)이나 개인여가중심형(O.R. = .49, p< .05)보다는 가족중심형에 속하였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개인여가중심형보다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O.R. = .36, p< .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경향을 파악하고, 이들이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하며 주말을 보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남성의 주말 시간일지 857부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 시간사용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시간이 부부공유시간보다 2배 정도 길게 나타났고,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량은 111.2분으로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주말이 아닌 평균적인 날의 부부공유여가시간을 측정한 P. W. Kingston and S. L. Nock(1987)의 연구에서 홀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으로 나타난 221.2분이나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으로 나타난 191.7분, 그리고 I. Glorieux et al.(2011)의 연구에서 유급노동과 개인유지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부부가 함께 보낸 23.6시간(하루로 환산하면 202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부부공유 여가시간은 78.5분에 불과하여, 벨기에 부부의 공유여가시간인 160분의 50%(I. Glorieux et al., 2011), 미국 부부의 공유여가시간인 204분의 35% 수준에 불과했다(M. Voorpostel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부부가 같은 장소에 있는 시간을 부부공유시간으로 정의한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부부가 같은 활동을 수행한 시간을 부부공유시간으로 정의한 데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부부공유시간은 순수하게 부부만의 시간이 아니라 자녀가 포함된 시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부부만의 공유시간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길지 않은 부부공유 여가시간 가운데 상당량이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부부관계의 질이나 결혼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M. S. Hill, 1988; P. W. Kingston & S. L. Nock, 1987; K. Lee et al., 1995; S. Shaw & D. Dawson, 2001; G. T. Smith et al., 1988; L. Strazdins et al., 2006)를 고려할 때, 이처럼 한국 남성들이 주말에 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외국에 비해 적다는 사실은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가 어리고 노동시간이 긴 25-44세 사이의 부부에게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I. Glorieux et al.(2011)의 제안을 염두에 둘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 가운데 80%가 20, 30대로 젊은층이고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S. Lee and H. Lee(2011)의 논의대로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어린 자녀가 있다는 생애주기적 특성과 직장 경력이 짧을수록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고 근무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부부만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과 시간확보 노력이 이후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중노년기의 부부공유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주말에 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의 취미활동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성은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 영역보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각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육아를 제외한 남성의 주말 가사노동 시간이 40분에도 못 미쳤다. 세부 행위에서는 주말에 혼자서 청소를 하거나 음식준비와 정리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인과 함께 하는 행위 중에서는 물품구입 항목에서의 행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물품구입을 제외한 다른 세부 행위에서는 혼자 활동하는 비율이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공간적 개념이 아닌 공통된 행동에 따라 '함께 한 사람'을 정의한 원자료의 특성이 드러났다. 즉, 가사노동은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청소를 하였다면, 이

는 각각 '개인시간'으로 일지에 기록되는 것이다. 반면, 물품구입은 주로 집안이 아닌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가 행위와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주말에 부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물품구입에서의 높은 참여율과 참여자 평균시간은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물품구입에서 부부공유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은 남성은 반여가적인 성격의 가사노동에 주로 참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 K. Lee et al.(2012)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 보살피기 영역에서 사용한 총 63분 가운데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이 57.3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혼자서 미취학 자녀를 보살피는 행위에 참여한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의 주말 가족보살피기 활동은 결국 자녀를 돌보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자녀를 보살피는 13.1분보다 훨씬 많은 49.9분을 남성이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한다는 결과 또한 부인은 같은 공간에 있으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시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와 어머니 없이 자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였는데, 어머니가 있는 경우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으며,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육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L. Craig, 2006; J. L. Hook & C. M. Wolfe, 2012; W. J. Yeun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한계상 남성이 미취학 자녀를 보살피는 약 50분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인 없이 혼자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자녀를 돌보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W. J. Yeung et al.(2001)은 양부모가 있는 가족에서 아버지가 홀로 자녀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였고,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사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적인 관련성에 대해 아버지가 자녀와 있을 때에는 거의 어머니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M. J. Budig & N. Folbre, 2004; E. C. Cooksey & M. M. Fondell, 1996).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할 때, 아버지가 자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이 주말에 부인 없이 자녀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한국에서의 젠더화된(gendered)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후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성들이 주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제 및 여가활동 가운데 TV시청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에 사용한 시간과 참여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는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하였다(L. Craig & K. Mullan, 2013; I. Glorieux et al., 2011; P. W. Kingston & S. L. Nock, 1987; M. Voorpostel et al., 2010). 부인과 함께 한 활동 중에서는 교제활동에 사용한 시간이나 참여율이 미디어 이용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는 가족내 상호작용과 소통을 증진시키고 가족응집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적절한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여가를 추구하지만(S. Shaw & D. Dawson, 2001), 주말의 가족시간은 대부분 TV 또는 DVD 시청, 가족식사, 친구 및 친척들과의 교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S. Wheeler(2014)의 논의와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혼자서 보내는 여가시간이 부인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보다 2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교제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집안인지 집밖인지에 따라서 혼자 보내는 여가시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L. Craig & K. Mullan, 2013). 집안에서 혼자서 하는 독서나 컴퓨터 게임 같은 취미활동은 같은 공간에 있는 미취학 자녀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집밖에서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 자녀의 방해 없이도 가능하다.

부인과 함께 하는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의 성격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집안에서의 부부공유 여가시간은 물론 집밖에서의 부부공유 여가시간 또한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집안에 다른 조력자가 있지 않는 이상 어린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부부만 외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의 부부공유시간은 자녀가 포함된 가족공유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가족공유시간의 과대추정을 최소화하고자 미취학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을 따로 분석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자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보완될 때 한국 남성들의 주말 가족시간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미취학 자녀를 둔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은 '전반적 비참여형'(46.1%), '개인여가중심형'(24.7%), '부부여가중심형'(17.6%), '가족중심형'(11.6%)으로 나뉘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에는 어린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여가중심형은 가족여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 출산 및 교육시기에 가

족공유여가활동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H. Kim(2008)의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가족여가 성격의 부부여가중심형과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 외에도 가사노동 시간이 집단 평균보다 높은 가족중심형이 유형으로 분류된 결과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부부의 돌봄이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K. Eun, 2009; I. Glorieux et al., 2011; D. Hallberg & A. Klevmarken, 2003; K. Lee et al., 2012; S. Lee & H. Lee, 2011; D. J. Maume, 2011). 그러나 가족중심형에 속하는 남성은 11.6%에 불과하여, 미취학 자녀가 가사노동과 돌봄의 부담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그 부담을 적극적으로 지고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보다 많은 17.6%가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한다는 결과는 남성들이 자녀에 대한 신체적 보살핌이나 가사노동 분업보다는 가족단위의 여가를 아버지역할 수행 방식으로 더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M. Harrington, 2006).

전반적 비참여형이 차지하는 46%의 높은 비중은 많은 남성들이 주말을 자기 자신을 위한 휴식이나 여가,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 비참여형을 다른 유형과 구분시켜주는 일관된 변수는 노동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이 보장되는지를 보여주는 휴일 빈도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남성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성의 시간일지로 시간사용 유형화를 시도한 국내 연구들에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과 관련된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 Cha, 2008; O. Kim, 2012; O. Kim et al., 2012). 주말근무가 더 이상 비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들에게로 관심을 돌린 연구자들은 아버지들이 주말에 일을 하느라고 가족 또는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을 주중에도 보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M. Bittman, 2005; L. Craig & J. E. Brown, 2014; J. L. Hook, 2012). 주말이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개인의 재충전 및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말근무에는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말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지 않는 직장내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들이 주말에 일보다는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과 주말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은 가족의 건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부여가중심형과 가족중심형에 속하는 남성들의 시간사용만족도가 전반적 비참여형과 개인여가중심형에 속하는 남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부부여가시간은 가족여가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통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남성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이(K. J. Daly 2001; M. A. Milkie et al., 2004) 주말에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여가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정서가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여가중심형과 가족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의 일-가족 양립이나 삶의 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준다(L. Strazdins et al., 2006; M. Tausig et al., 2001; A. Wirtz et al., 2011). 남성들이 가족과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말 휴일을 보장해 주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책시행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지만, 이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성들에게 맞춤화된 일-삶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또한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말 시간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강할수록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 내에서도 자녀의 나이가 영아기냐 유아기냐에 따라 아버지의 주말 시간사용 형태는 매우 다를 것이다. 아버지의 나이와 자녀의 나이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전제할 때,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중심형보다는 개인여가중심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보다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이가 자립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아버지 혼자만의 여가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학 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조력자 역할을 해 주고 아버지에게 혼자만의 여가시간을 가능하게 해 주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가 없는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는 L. Craig and K. Mullan(2013)의 연구결과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강할수록 개인여가중심형이나 전

반적 비참여형에 비해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여가중심형이 갖는 가족여가의 성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가족중심형과 다른 유형을 구별시켜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통해,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성역할 태도는 양성평등적 경향보다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주말에 일을 하거나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대신 가족과의 여가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직업 특성은 주로 전반적 비참여형과 다른 유형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이 주 5일보다 길거나 불규칙할 때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로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남성들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든지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든지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 그 어떤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S. Ahn et al., 2012; Y. Han & S. Yoon, 2009; S. Heo, 2008; J. L. Hook, 2012; D. J. Maume, 2011; M. A. Milkie et al., 2004; W. J. Yeung et al., 2001). 또한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일 때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중에 끝마치지 못한 일이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L. Craig and J. E. Brown(2014)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휴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휴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추측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사무직에 비해 농림・기능・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른 유형보다도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 직종의 특성상 근무일정을 조정하거나 근무일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K. Roberts, 2007).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은 경우 표준화된 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L. Craig & J. E. Brown, 2014). 사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가족중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한다는 결과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비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J. L. Hook(201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전문직 또는 관리직 종사자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경우 하루만 쉬는 남성들에 비해 부부여가중심형이나 개인여가중심형보다는 가족중심형에 속한다는 결과는 주말에 주어진 시간을 우선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여가활동에 사용한 후, 시간이 더 허락될 경우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에 사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남성들이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보다 여가를 더 선호하는 성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이 개인여가와 가족여가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개인여가중심형보다 부부여가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주말시간은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만,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주말시간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함께 한 사람' 자료에서는 함께 한 사람을 중복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주말에 가족과 보낸 시간을 과대추정하지 않기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만을 분석하고 미취학 자녀와의 공유시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주말 가족공유시간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생활시간조사에서 시간대별로 함께 한 사람을 기록한 원자료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부인 및 미취학 자녀와 함께 한 공유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시간부족감, 피로도, 시간사용만족도와 같이 시간사용과 관련된 정서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의 건강, 심리적인 상태,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과 같이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상적인 시간사용과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말에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일하는 남성에게 주는 만족감을 실증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직장 내 장시간 노동과 주말 근무에 관용적인 조직문화를 개선시키고, 남성들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을 독려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hn, S. M., Lee, K.-Y., & Lee, S. M. (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2), 93-119.

Bittman, M. (2005). Sunday working and family time. *Labour & Industry, 16*(1), 59-83.

Bittman, M., & Wajcman, J. (2004). The rush hour: The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In N. Folbre, & M. Bittman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pp. 171-193). New York: Routledge.

Budig, M. J., & Folbre, N. (2004). Activity, proximity, or responsibility? Measuring parental care time. In N. Folbre, & M. Bittman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pp. 51-68). New York: Routledge.

Cha, S. E. (2008). A typology of mid-life adults' everyday life: An analysis of time dia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1), 103-116.

Cha, S. E. (2010). Who is the busiest in Korea?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time pressur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27-49.

Chalasani, S. (200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 and their time with children.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for Time Use Research, 4*(1), 93-117.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208-1233.

Cooksey, E. C., & Fondell, M. M. (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93-707.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and Society, 20*(2), 259-281.

Craig, L., & Brown, J. E. (2014). Weekend work and leisur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Who misses ou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4), 710-727.

Craig, L., & Mullan, K. (2012). Shared parent-child leisure time in four countries. *Leisure Studies, 31*(2), 211-229.

Craig, L., & Mullan, K. (2013). Parental leisure time: A gender comparison in five countries. *Social Politics, 20*(3), 329-354.

Daly, K. J. (2001). Deconstructing family time: From ideology to lived exper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83-294.

Eun, K.-S. (2009). Household division of labor for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145-171.

Gerson, K. (1993). No man's land: Men's changing commitments to family and work. New York: Basic Books.

Gillies, V. (2009). Understandings and experiences of involved fathering in the United Kingdom: Exploring class dimension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4*(1), 49-60.

Glorieux, I., Minnen, J., & van Tienoven, T. P. (2011). Spouse "Together Time": Quality time within the househol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2), 281-287.

Guryan, J., Hurst, E., & Kearney, M. S. (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Hallberg, D., & Klevmarken, A. (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Han, J. S., & Lee, Y. S. (2005). The study on types of couples' time us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9*(2), 81-95.

Han, Y.-S., & Yoon, S. Y. (2009). The analysis of leisure time use of urban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2), 81-95.

Harrington, M. (2006). Sport and leisure as contexts for fathering in Australian families. *Leisure Studies, 25*(2), 165-183.

Heo, S.-Y. (2008).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Women's Studies, 24*(3), 177-210.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A multidisciplinary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Hofferth, S.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Hook, J. L. (2012). Working on the weekend: Fathers' time with family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631-642.

Hook, J. L. & Wolfe, C. M. (2012). New fathers?: Residential fathers' time with children in four countr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3*(4), 415-450.

Iwasaki, Y. & Smale, B. J. (1998). Longitudinal analyses of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transitions, chronic health problems, leisur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eisure Sciences, 20*(1), 25-52.

Kalmijn, M. & Bernasco, W. (2001). Joint and separated lifestyles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639-654.

Kim, H.-Y. (2008). Relationship among married women'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ype, leisure competence and share family leisure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3), 85-96.

Kim, O.-S. (2012). A typology of leisure time with whom of the married.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33-152.

Kim, O.-S., Han, Y.-S., Lee, K.-Y., Lee, Y.-S., Cho, H.-K., Mee, S.-M., & Youn, Y.-O. (2012). A typology of family shared time of Korean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65-186.

Kingston, P. W. & Nock, S. L.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 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Lee, J.-H., & Lee, Y.-S. (2002). The effects of working days of married men and women on their time use on the weeken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4), 165-177.

Lee, K. Y., Kim, O. S., & Koo, H. R. (1995). Shared leisure time with spouse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3), 113-126.

Lee, K.-Y., Lee, H.-A., Kim, O.-S., Lee, Y.-S., Cho, H.-K., Lee, S.-M., Kim, J.-H., & Han, Y.-S. (2011). Time use of family housework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2), 103-128.

Lee, S., & Lee, H. (2011). Analysis of time use of double income paid work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81-96.

Lee, Y.-S., Kim, O.-S., Lee, K.-Y., Cho, H.-K., Lee, S.-M., Kim, H.-N., & Han, Y.-S. (2012). Shared leisure time with couples, preschool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and their determinant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1), 199-227.

Mattingly, M. J., & Sayer, L. C. (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Maume, D. J. (2011). Reconsidering the temporal increase in fathers'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2*(3), 411-423.

Milki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 M., & Robinson, J. P. (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739-761.

Monna, B., & Gauthier, A. H. (2008).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arental tim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4), 634-653.

Nomaguchi, K. M., Milkie, M. A., & Bianchi, S. M. (2005). Time strai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diff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56-792.

Pacholok, S., & Gauthier, A. H. (2004). A tale of dual-earner families in four countries. In N. Folbre, & M. Bittman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pp. 197-223). New York: Routledge.

Presser, H. (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93-111.

Reissman, C., Aron, A,. & Bergen, M. R. (1993). Shared activities and marital satisfaction: Causal direction and self-expansion versus boredo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2), 243-254.

Roberts, K. (2007). Work-life balance - The sources of the contemporary problem and probable outcomes: A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Employee Relations, 29*(4), 334-351.

Sayer, L. C., Bianchi, S. M., & Robinson, J. P. (2004a).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43.

Sayer, L. C., Gauthier, A. H., & Furstenburg, F. F. (2004b).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national vari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152-1169.

Shaw, S. (2008). Family leisure and changing ideologies on parenthood. *Sociology Compass, 2*(2), 688-703.

Shaw, S. & Dawson, D. (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4), 217-231.

Smith, G. T., Snyder. D. K., Trull, T. J., & Monsma, B. R. (1988).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from couples' use of leisure tim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6*(1), 3-13.

Song, H., Ko, S., Park, J., Kwon, H., Kim, Y., & Jin, M. (2010). Men's father-role in the context of family friendly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341-361.

Song, H. (2012).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need of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18.

Strazdins, L., Clements, M., Korda, R. J., Broom, D. H., & D'Sauza, R. M. (2006). Unsociable work? Nonstandard work schedules,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2), 394-410.

Tausig, M. & Fenwick, R. (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 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

Voorpostel, M., van der Lippe, T., & Gershuny, J. (2010). Spending time together - Changes over four decades in leisure time spent with a spous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2*(2), 243-265.

Wheeler, S. (2014). Organized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family activities: How do they feature in the middle-class family's weekend? *Leisure Studies, 33*(2), 215-232.

White, L. K. (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511-519.

Wight, V. R., Raley, S. B., & Bianchi, S. M. (2008). Time for children, one's spouse and oneself among parents who work nonstandard hours. *Social Forces, 87*(1), 361-370.

Wirtz, A., Nachreiner, F., & Rolfes, K. (2011). Working on sundays - Effects on safety, health, and work-life balance. *Chronobiology International, 28*(4), 361-370.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 (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Zuzanek, J. & Smale, B. J. (1999). Life-cycle and across-the-week allocation of time to daily activities. In W. E. Pentland, A. S. Harvey, M. P. Lawton, & M. A. McColl (Eds.), *Time Use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pp. 127-153). New York: Kluwer Academic / Plenum Publishers.

☐ Received: January 14, 2015
☐ Revised: April 1, 2015
☐ Accepted: April 3, 2015